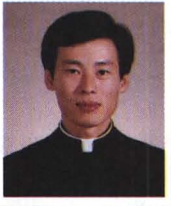


강론 ...

예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한병헌 신부
(웅진성당 주임)

성경안에서 특히 복음서 안에서 기적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는 신기한 일, 기이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디에 하느님의 뜻이 있는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저 세상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십니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은 자연 현상 안에서의 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일상 안에서의 기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안에서의 가장 큰 기본은 일상적인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고 더 나아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활동하며 봉사하는 일들'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쉬고 운동이나 놀이를 즐기며 가족이나 주위의 여러 사람들과 만남 안에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 기적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일상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포도주는 일상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었습니다. 특히 혼인 잔치 집에서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일상 안에서 필요하고 소중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평범하기만한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도 기적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적을 멀리에서 기이한 일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기적은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이를 체험할 수 있음을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해 주십니다.

숲머리 생각



문정섭
(베드로)

영광과 소명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왕후만이 유대인 가운데 홀로 목숨을 부지하리라 생각마시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에스 4,13)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세속적 영광이라 할지라도 나쁜 이유는 없다. 유혹이 많아도 영광 자체가 죄스러운 것은 아니다.



모르도카이가 왕후에게 다그쳤다.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왕후만이 홀로 목숨을 부지하리라 생각마시오. 이런 때에 왕후께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데서라도 구원의 손길이 와서 유대

에스테르의 영화는 한 순간에 주어진 특별한 선택이었다. 왕후의 자리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다. 일은 사람이 꾸밈어도 결정은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었다. 에스테르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도카이를 충실히 따랐으며 하느님을 잊지 않았다. 왕후의 자리를 남용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으며 왕실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일을 하였다. 그녀는 모반 사건에서 왕의 목숨을 구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영광 중에도 시련은 있는 법이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대신들의 우두머리인 하만이 앙심을 품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모르도카이가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왕의 칙령이 내려지고 유대인들을 멸할 날짜가 정해졌다. 모르도카이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다. 에스테르는 당황하고 놀랐으나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들 앞에 살 길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되면 왕후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망할 줄 아시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모르도카이의 말은 왕후가 받은 소명을 일깨워 주는 화살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영광된 자리는 어려울 때에 진가를 나타내는 법이다. 영광이 큰 만큼 시련도 크고 십자가도 크다. 에스테르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자리가 복되기 위해서는 소명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를 거부하고 영광만을 누리려 했기에 문제가 되었다. 에스테르가 과연 그 일을 해낼 것인가? 영예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영예는 커다란 시련의 극복 뒤에 오는 것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교도소의 어느 하루



단풍을 붉게 태우고 떠나간 가을 뒷자리에 황량한 들녘이 동면의 긴 잠을 자고 있

습니다. 그 들녘의 한 끝에 서있

는 회색에서 흰색으로 단장한 교도소의 높은 담장이 여전히 쓸쓸하고 추워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사회 사목 신부님과 함께 미사에 참석 하기위해 낯설게만 느껴지는 교도소 정문 안을 들어서면서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오르막길을 올라 높은 담장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문으로 들어섭니다.

봉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이열 종대로 나란히 걸어 들어가면 세 번째 잠긴 문이 열리고,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철커덕 자물통 잠그는 소리가 등골에 찬물을 끼얹는 듯 추운 날씨에 더욱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면 네 번째 문이 열립니다.

넓고 큰 강당 안 단상 위에는 제대가 잘 정돈되어 있고, 파란 수의의 수용자들 사이에 베이지색의 수의를 입은 모범수들도 보입니다. 간혹 줄무늬의 환자복을 입은 형제들도 눈에 띕니다. 한편에서는 수용자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하얀 단복을 입고 반주자에 맞춰 성

가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른 좌석에 배치된 봉사자들과 그동안 미사를 함께 해오던 형제들

의 반가운 눈인사가 오고갑니다. 그곳에서는 말을 주고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악수조차도 할 수 없는 단절된 공간이지만, 서로의 눈빛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됩니다. 미사가 시작되고 평화의 인사가 나누어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평화를 빌어줍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간절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는 말없는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합니다. 외진 곳 소외된 곳에 미사 참례만으로도...

내가 그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중에서-

일 년에 두 번 흑한과 흑서엔 모든 미사와 봉사가 멈추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춥고 긴 겨울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느님의 자녀인 그들의 가슴에 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교도소 정문을 나섭니다. 그림 황의성(세례자 요한)



김영숙
(소화 테레사)

입당송 시편 66(65),4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62,1-5

회답송 시편 96(95), 1-2, 7, 24-3, 7-8, 9와 10, 7, 10(◎ 3)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들을 전하여라.

제2독서 1코린 12,4-11

복음 환호송 2테살 2,14 참조

◎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1-11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께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 하나이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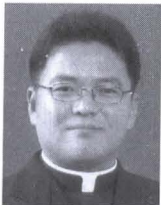
(루카 15,18)

공현식(바오로) · 전동 성당

하느님 아버지의 품은 우리가 언제나 머물러야 할 마음의 안식처이자 언젠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마치 자기 자신의 당연한 몫인 양 여기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세대 속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깨워 일으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아버지의 품에 머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애태우며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부르며 기다리십니다.

이제 이 부르심과 기다리심에 “예”하고 응답하며 사제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부족한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늘 깨어 아버지 하느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 청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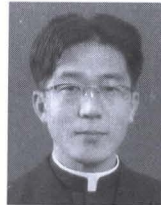
(루카 4,18-19)

연규영(아우구스티노) · 황등 성당

신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신학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신학교 7년의 시간은 저를 많이 성숙시켜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의 부족함도 깨달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늘 함께 해주셨던 하느님의 은총

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7년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의 종인 사제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갈 사제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보내셨으니 기쁘게 갈 것입니다. 또 살아가야 할 목표를 주님이 가르쳐주셨으니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기쁘게 실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그 삶을 기쁘게 사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사 43,1)

정세진(토마스) · 용안 성당

하느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의 선택이 있기 전에 이미 주님이신 그분께서는 먼저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을 때면, 때론 고통과 좌절을 만나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이지만 그럴 때마다 자상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두려워 말라.” 하시며 처진 어깨에 손을 올려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나 슬픔, 병이나 약함 등은 절대로 혼자만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이나 약함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또한 고통이나 슬픔을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더욱이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더욱 의탁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테살 5,16-18)

김중성(베드로) · 나운2동 성당

살아가는 여정에 넘어져 아프고 힘들 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같이 울어주셨던 주님이 계시기

에 이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하루의 시간들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고,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감히 “당신의 사제로 세상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다운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예레 1,8)

이용재(요셉) · 호성동 성당

‘말씀의 고독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의 소명사화를 묵상하면서 진정 하느님만이 구원의 방패이심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어, 저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는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부르심과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신 주님! 저의 자유와 기역과 지성과 의지를 모두 받으소서. 제가 소유한 이 모든 것, 당신이 제게 주신 것이기에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탈출 3,12)

황규진(세레자 요한) · 월명동 성당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 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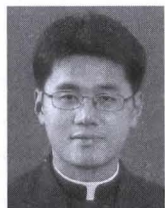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년을 이렇게 형제들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전부를 하느님과 이렇게 살았음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

을까요?

사제가 되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저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제 삶의 목표입니다. 어찌하겠는가! 일언반구도 없이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하고 말씀하시니 난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될 것이지요.

자신 있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그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외롭지도, 아프지도, 힘들지도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외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렵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



“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요한 17,9)

소재나(가브리엘) · 서일 성당

97년에 입학해서 약 10년 동안 사제의 길을 준비하면서 수차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도 다시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새로운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부르신 모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아닌 제자들과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면 항상 가슴 벅찬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며 그 모습에서 힘을 얻고 동시에 그 모습을 닮아 가렵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서품되는 이분들이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제서품자

정광철(마르첼리노-노송동 성당)

김관우(스테파노-상관 성당)

하철민(안토니오-황등 성당)



이주민 영어미사 기쁨 '솔솔'

◆ 이주민(移住民) 사목을 통한 이웃사랑

군산 소룡동 성당의 주일 오후 풍경은 예사롭지 않다. 오후 1시가 지나면서 약간은 허름한 복장에 우리보다 짙은 피부 빛깔을 띤 청년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선다. 기타를 멘 젊은이도 있고 갓난아이를 안고 오는 젊은 새댁도 보인다. 필리핀 이주민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는 날, 그들에게는 이 날이 고국의 그리운 얼굴들을 볼 수 있고 낮익은 체취를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비록 객지의 고달픔이 크겠지만 그들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 때문인지 웃음이 가득한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다. 필리핀 공동체는 미사 전례를 위해 성가대도 스스로 구성할 만큼 적극적이다. 이명재 주임신부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자 기타반주에 맞춰 부르는 찬양이 기대치를 넘어 프로의 수준이다. 그리운 고국의 얼굴들을 떠올리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숙연하게 느껴진다.

소룡동 성당의 이주민 사목은 2005년 5월, 착한 목자 수녀회, 필리핀 리마 수녀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군산 에이타운의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노동자, 학생, 국제결혼 여성들로 고루 다양해졌다. 매주 주일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미사'가 봉헌되는 데 특히 미사 후 열리는 나눔 잔치는 파티를 즐기는 필리핀 공동체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리운 얼굴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떠들면서 모든 시름을 날려 보낸다. 이들을 위해 군산 지곡 성당의 빈첸시오 회원들은 차량 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소룡동, 지곡 성당의 레지오 단원들은 나눔 잔치의 음식을 준비한다. 이명재 신부는 함께 미사를 봉헌해주는 전보근 신부(술정이 보좌)와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주민들을 위해 한국 문화와 풍물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말한다.

◆ 성경 읽기와 전례의 활성화

소룡동 성당은 92년 월명동 성당과 나운동 성당에서 분리되어 군산의 외곽지역인 소룡동과 산북동, 어청도 공소를 관할하고 있다. 본당은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에도, 신자들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교육과 주거가 편리한 도심지역으로 떠나는 비율이 높아 사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 본당에 부임한 이명재 신부는 신자들의 영성을 통한 일치를 지향하며 '성경 읽기와 전례의 활성화'를 사목의 중심에 두었다. 성경 읽기를 위해 신자들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권면하였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신자들이 미사 강론 중 한두 구절씩 성경을 찾아 함께 읽으면서 말씀에 맛들이게 되었다. 이제는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미리 찾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사 준비가 이루어지는 은총을 얻는다. 성경 구절을 찾는 데 이미 선수가 다 된 신자들은 지난 성탄에 맞추어 3개월간의 신구약 성경읽기를 끝내고, 그 기쁨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 어르신 성서 공부인 '최양업 성서대학'은 구약과 복음 편을 끝내고 수료식을 하였으며 이제 사도행전과 묵시록 부분을 마무리 하고 있다. 특히 복음 편을 필사하여 봉헌한 어르신들이 이제는 신약 전체를 필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니 말씀의 즐거움에 푸욱 빠져 사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또 한 가지는 전례의 활성화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인 전례를 다양한 찬양을 통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신자들이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주일미사는 한국적인 참미사

힘찬 찬양 · 울동의 전례 은총 '활활'



곡을 사용하고 저녁 미사는 청년성가대인 데우스 찬양단의 생활 성가로 미사를 활기 있게 한다. 교구에서 청소년 사목을 통해 젊은이들이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체험한 이 신부는 전례에 생활 성가를 도입해 젊은이 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었다. 중·장년층도 어깨 아래에서만 움직이던 울동이 머리 위까지 올라와 힘찬 찬양과 울동으로 젊은 세대와 느낌을 공유한다. 지금은 청년 폐제기도가 활성화 되어있고 라틴어 미사곡, 폐제 성가, 국악미사곡, 생활 성가 등 다양한 성가가 전례에 도입돼 하느님께 찬미를 올려드리고 있다.

◆ 작은 교회 가정기도의 생활화

가정 사목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명재 신부는 매년 가정 방문을 빠뜨리지 않는다. 부임 첫 해에는 한 집에 1시간씩 머물면서 개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앙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각 가정이 하느님의 작은 교회임을 일깨워 주었다. 가정 기도문을 배포하고 여러 번의 교육을 통해 가족기도를 안내하였고 앞으로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가족 기도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가족끼리의 안수와 축복기도는 이미 생활화되어 많은 가정에서 기도를 통하여 가족들 간의 유대가 깊어지는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다.

◆ '발등의 불' 성전 건축의 꿈

소룡동 성당은 재 작년 겨울, 보름동안 내린 폭설로 성당 지붕이 내려앉는 피해를 입었다. 내부 곳곳에 20여개의 철골 기둥으로 지지대를 받치고 있는 성당 가건물은 보는 사람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더해 준다. 지금은 천장에 굴곡이 생기고 틀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에 성전 건축은 소룡동 성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명재 신부는 "미사 중에도 지지대로 겨우 버티고 있는 성당 천장을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자들에게 성전 건축의 짐을 얹어드려 죄송하다."고 사목자다운 애뜻함을 내비친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신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성전 건축은 최우선 과제이기에 올해에는 서로 힘을 모아 이 일을 이루어 나가자고 신년인사를 대신하였다. 이병준 사목회장은 "작년에 바자회를 통해 신자들의 일치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를 얻어낸 것이 큰 수확이었다."며 행사 때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전체 교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금년 3월 성전 기공식과 함께 한 차례의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는 소룡동 성당 마당엔 푸짐하게 시래기나물이 널려져있다. 올 바자회에 추어탕 재료로 쓰일 시래기는 성전 건축의 꿈을 담아 공중에서 나풀거린다. 그 모습은 비록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힘과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손짓으로 다가온다.



취재 | 신현숙 · 오안라 기자, 사진 | 김영수 기자



2007년 교구 신년하례식 및 미사

전주교구(교구장=이병호 주교)는 신년 하례미사 및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회장=서동호)가 제정한 사랑 봉사상, 생명 환경상 시상식을 지난 1월 3일(수) 오후 2시 전주 중앙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했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와 교구 사제단 합동으로 봉헌한 신년 축하미사와 세배, 시상식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사 후 사제 대표와 수도자 대표, 평신도 대표가 교구장께 큰절로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가진 시상식에서는 사랑 봉사상에 우림본당 최순만(프란치스카) 자매가, 생명 환경상에 용머리 본당 김정철(바오로) 형제가 수상했으며, 사회 문화상은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사랑 봉사상을 수상한 최순만(프란치스카) 자매는 전주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독거노인 봉사회장, 전주교구



농촌사목의 은빛 여정 봉사회장,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주교구 대표 등을 맡아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와 함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생명 환경상을 수상한 김정철(바오로) 형제는 용머리 본당 전 사목회장으로 본당 사목회에 환경분과를 신설하고 환경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환경보호운동을 해

왔으며, 특히 완산칠봉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로 완산칠봉 구역 내에 생태습지조성 프로젝트를 정부와 환경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등 환경생태계 보호에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교황님의 평화의 날 담화문을 요약 설명하고 “평화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평화를 이루고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가자”고 강론을 통해 주문했다. |이관영 기자

●영등소라 성당 성서 100주간 모임 오리엔테이션

지난 1월 3일(수) 영등소라 성당(주임=유장훈 신부)은 성서 100주간 모임을 시작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영등소라 신자들과 소식을 듣고 온 타 본당 신자들 약 100여명이 함께 하는 성서 100주간 모임은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성서를 100주 동안의 계획표에 따라 읽고 체험을 나눔으로써 성서에 대한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진솔한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3년에 걸친 과정이다.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며, 신자는 모름지기 성서를 통하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한다.”는 신부님의 말씀과 함께 성서의 중요성, 성서를 읽는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당부 말씀이 있었다. |조은아 기자

<p>삼천동 감장 머리</p> <p>매주(화) 컷트, 드라이 20%할인 모닝파마실사(AM 9시~12시) 코팅+애플서비스(매주 월요일 휴무) 서은숙(가브리엘라) 서정애(루치아) ☎(063)222-9013 위치: 삼천동 흥진@1차 맞은편 투레주르 사이길</p>	<p>각종 김장용 젓갈 산지직송</p> <p>서해젓집</p> <p>염점례(리디아)</p> <p>위치: 삼천동 농협공판장 내 227-8111 / 011-675-0091</p>	<p>대장항문병 전문병원</p> <p>장문외과</p> <p>치질·변비·유방크리닉 전문의 최 성 양(루카) 전문의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의 이 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p>	<p>세무사 최준철 사무소</p> <p>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p> <p>전주시 덕진구 송촌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p>
<p>전통 떡케익 대표브랜드</p> <p>떡보의 하루</p> <p>최기호(요한) 이은숙(요한나) 콜센터 1544-8567 / 서신점 276-8567 떡케익♫ 시키면 ☎ 배달해드려요</p>	<p>유* 사랑외과</p> <p>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p> <p>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p>	<p>젼인아트</p> <p>전진아(실비아)</p> <p>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p>	<p>천주교 제주교구</p> <p>운전기사 사도회</p> <p>형제적 사랑으로 제주관광 및 성지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 면 많은 도움을 드릴것습니다. · 차량·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p>



제4회 테마영상공모전 시사회 및 시상식

지난 1월 3일(수) 홍보국(국장=서석희 신부)은 제4회 테마 영상공모전 수상작 시사회 및 시상식을 교구청 3층 강당에서 가졌다.

장려상과 우수상, 최우수상 등 세 작품의 시사회와 출판자들의 제작배경 및 해설, 시상식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교구청 이병호 주교와 수상자, 특별 초청된 최우수작 주인공 오금희(수산나)씨 등이 함께했다.

총 34편 출판작 가운데 지난해 12월 15일(금) 본선에 오른 11개 작품을 전문가들의 심사로 가려낸 후 이날 시상한 작품은 용머리 본당 주임 김영수 신부가 출판한 사순절 묵상 '십자가'가 장려상으로 상패와 상금 30만원을, 전 신자가 매 주일 성당 마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팔복동 본당 빈첸시오 회원들의 활동내용을 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출판한 삼천동 본당 서송원(토마스 베케) 형제가 우수상으로 상패와 상금 50만원을, 휠체어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1급 지체 장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을 도와주려 애쓰는 오금희(수산나)씨를 따라 다니며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송학동 본당 조은아(베로니카) 자매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가 최우수상으로 상패와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인후동 본당 본당의 날 행사를 담은 한기호 신부 작 '인후 성당의 날', 가족주말 프로그램을 담은 가

정 사목국 김정민 신부의 '가족주말', 신학생들의 작품인 '신학생의 삶' 등이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시사회와 시상에 함께한 교구청 이병호 주교는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영상을 찍는 기술보다는 무엇을 담아 전할 것인가 하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소박한 영상이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장면이 많았던 것은 그런 안목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평을 했다.

이번 테마 영상 공모전을 주관한 홍보국장 서석희 신부는 "2003년부터 시작해 금년이 네 번째인데 총 34편의 작품이 출판된 것을 보면 이제 테마 영상공모전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교구를 비롯해 각계의 도움으로 더욱 큰 영상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영 기자

● 군산지구 중고등부 '젊음이 내리는 밤' 행사

군산지구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회장 신정경) 주관으로 지난 1월 7일(주일) 오후1시부터 조촌동 성당(주임=박병준 신부)에서 '젊음이 내리는 밤' 행사를 가졌다.

'젊음이 내리는 밤' 행사는 지난 1년간을 정리하고 단합하는 자리로 12개 본당중 11개 본당이 참여했다. 1부 행사는 성극, 성가, 뮤지컬, 율동 등의 다채로운 장기자랑이 펼쳐졌고 중·고등부의 끼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

다. 2부 행사는 성서 암기, 기도 암송, 각종 놀이 등의 시장놀이로 진행되었고 창세기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다. 지도신부(김혁태-지곡동성당 주임)는 파견미사에서 "장기자랑과 행사-시간 모두는 주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이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장기자랑에서 소룡동 성당의 '사물놀이'가 최우수상, 조촌동 성당의 '뮤지컬'이 우수상, 팔마 성당의 '천사개'가 장려상을 받았다.

김용운 기자

<p>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p>	<p>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약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만(글리라)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p>	<p>17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p>	<p>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겨울성소파링 대상 및 일시: 1)중등부: 1월 30일~31일 2)고등부: 2월 1일~2일, 3)대학생 및 일반: 2월 3일~4일 장소 :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목욕 참가비 : 20,000원 신청 및 문의: 02-6364-5500/010-7141-5549</p>
<p>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티마트 야외주차장 옆</p>	<p>교통 사고보상상담 손해사정인 황 선 주 (프란치스코) ☎(063)236-1040 H·P 011-659-4985</p>	<p>성지순례(126차) 이집트/이스라엘/오르타리아/바티칸 출발 : 2007년 1월 24일~2월 3일(10박 11일) 매일 미사 드립니다. 전 일 관 광 조선 (안토니오) 문의 : 063-288-6666</p>	<p>2007(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전문대학' 정시 2차 : 2007.1.10(수)~2007.1.23(화) 모집학과 안내 : (http://www.csangji.ac.kr) 문의 : 054-851-3021~3 / fax : 054-851-3009</p>



교구장 일정

- 사제서품 대상자 피정
1월 17일(수)까지
- 사제·부제 서품식
1월 18일(목) 오후 2시 중앙
- 교구 사회복지시설·기관 신년하례식
1월 19일(금) 오전 10시 센터
- 레지아 신년 하례미사
1월 20일(토) 오후 2시 30분 중앙
- 남성 제 81차 꾸르실료 미사
1월 21일(주일)

미사·행사·모임

- 사제·부제 서품식
1월 18일(목) 오후 2시 중앙
- 교구 사회복지시설·기관 신년하례식
1월 19일(금) 오전 10시 센터
- 교구 기자단 모임
1월 20일(토) 오후 5시
신임 기자(오후 4시)
- 사제평의회
1월 24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익산 하나회 미사
1월 21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가르멜 재속회
1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용머리
- 1월의 좋은 영화
일시 : 1월 17일(수)
제목 : 아미스타드
장소 : 센터 3층 / 155분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
(12/31~1/6)
서울교구 황지연신부 300,000
김봉철 2,170,000

이재후 신부(토마) 은퇴미사

이재후(토마) 신부님께서 2007년 1월 21일 교회 및 은퇴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목자로 서품 받으신 후 복음선포에 한 생을 봉헌하신 신부님의 뜻을 기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7년 1월 21일(주일) 오후 3시
장소 : 천주교 전주교구 삼례성당
문의 : 삼례성당 사무실 (291-3874)
아들신부 대표 경규봉 신부
천주교 전주교구 삼례성당 사목 강영만(바로)회장

교육·피정·연수

- 전국 M.B.W 동계연수
1월 15일(월)~20일(토)
- 남성 제 81차 꾸르실료
1월 18일(목)~21일(주일) 천호
- 여성 제 93차 꾸르실료
1월 25일(목)~28일(주일) 천호
- 청년성서 39차 참세기 연수
1월 18일(목)~21일(주일) 나바위
- 전국 총대리 회의
1월 18일(목)~19일(금) C.C.K
- 신학생 동계 연수
1월 22일(월)~26일(목) 해월리 피정의집
- 2007년도 좋은 아버지 학교
1월 20일(토)~21일(주일) 오후 2시 센터
대상 : 모든 아버지 / 참가비 : 3만원
주제 : 가족과의 참 만남을 향한 첫 걸음
신청마감 : 1월 16일(화) / Fax: 285-0049
접수처 : 285-0041 사목국 가정사목부

기타

- 2007년도 전주교구 가톨릭합창단원 모집
기간 및 대상 : 2007년 2월 4일까지
전주교구 가톨릭 신자 및 예비신자
오디션 : 2007년 2월 5일(월)
센터 연습실 오후 8시
문의 : 011-638-5346 최만규
- 쌍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쌍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계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서용복 신부(토마스) 은퇴미사

서용복(토마스) 신부님께서 2007년 1월 21일(주일) 은퇴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고달픔을 달래 가면서 41년동안 사목하신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 1월 2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천주교 전주교구 노송동성당
노송동 성당 사목 한기성(레오)회장

• 교구에서는 금상동(구 소리개재, 천주교 묘지)에 성당신축, 납골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중이며 2007년 1월부터 안치 가능합니다. 교우분들 우선분양(자상 1,2층)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현재 천주교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분들의 유족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신청장소 : 286-0091 금상동 성당
011-658-8865 사무장

• 작은천사어린이집 직원채용
장애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자격 : 해당 자격증 소지자
모집기간 : 1월 31일까지
모집내용 : 특수교사, 보육교사, 운전기사 각 0명
주소 : 익산시 월성동 309-12
문의 : 063-834-7607 작은천사어린이집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규약성경 입문과정(2년)
자격 : 고졸정도의 학력 소유자(교과초월)
원서교부처 : 인터넷, 전국 바로로팔, 성바로서원
접수 : 11월 1일~2007년 1월 20일
문의 : 성바로로팔수도회 02-9440-819~824
www.paulinebible.or.kr
접수처 : 142-704 서울 강북구 미아9동103
성바로로팔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 교사초빙
1. 초빙학과 및 인원 : 영어, 수학, 역사, 지리, 지구과학, 도덕, 종교
(각1명, 종교는 성직자와 수도자에 한함)
※ 근무처 : 학교법인 해성학원 산하 학교
(전주 해성중·고, 성심여자중·고)
2. 자격 : 교원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자필자기소개서(A4 2매이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교원자격증 사본, 호적 등본
4. 제출처 : 천주교 전주교구청 학교법인 해성학원(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T : 285-0041~3
5. 제출기간 : 2007년 1월 27일(토) 12시까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6. 전형방법
1차 - 서류심사,
2차 - 전공 및 논술(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차 - 면접

• 빈첸시오의 집 직원채용
모집내용 : 물리치료사, 생활보조원 각 0명
모집기간 : 1월 3일부터~충원시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 자필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군경력확인용), 경력증명서, 세례증명서
접수처 : 완주군 비봉면 수선리 254-1
문의 : 262-8484 빈첸시오의 집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권 의 중
 유계원: 564-3529 수녀원: 564-6585 서목회장: 마면 주
 F A X: 563-1782

-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신입: 김래한 30만원
- 남성 제8차 꾸리실로 교육: 18일(목)~21일(일)
 ※ 하대연 도미니코 로가리도, 조인영 유한
- 레지아 신년하례미사: 20일(토) 후2시30분 중앙성당
- 주님 봉헌축일(2월2일): 제대초, 가정초 봉헌하실 분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한자루 2,500원
- 금주모임: 성모회 - 교중미사 후, 대건회 - 20일(토) 후7시
- 다음주모임: 애령회 - 교중미사 후
- 감사헌금: 조희순 10만원, 김정희, 이원희 각5만원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42,800원 ■ 교무금: 3,880,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김원 중
 유계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서목회장: 조 권 기
 F A X: 581-1334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 공동공소 서인석(라파엘) 선교사님
- 가톨릭센터 신축헌금과 본당기부금수 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 교리교사 겨울 MT: 15일(목)부주덕유산
- 공소 가정 방문 일정 ① 차북 23일(화)→24일(수)
 ② 동지 25일(목)→26일(금) ③ 청호 30일(화)
- 성가대에서는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 주님봉헌축일: 사무실(1년동안 제대초에 쓰여진 초와 가정초를 접수해주세요)
- 신축헌금 신입누계: 219,398,000원, 입금누계 - 177,645,270원
- 금주모임: 5구역
 ① 금주-전체공소본당미사참석
 ② 차주-동지 오전6시, 마포 후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1,337,190원 ■ 교무금: 340,000원

시기동 주임신부: 538-0092 사무실: 538-0091 주임신부: 경 규 봉
 유계원: 532-5777 수녀원: 538-0093 서목회장: 최 월 단
 F A X: 538-0094 홈페이지: http://www.sigdong.or.kr

- 가톨릭센터 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 주님 봉헌 축일(2/2): 초 봉헌 받습니다.
 ※ 제대초(5,000원), 가정초(2,000원)
- 복분자주판매: 1/20(토)~21(일) 서울 불광동성당-수고하시겠습니까
- 금주모임: 재속 프란치스코회(1/14 일), 모니카회(1/16 화), 주구회(1/20 토)
- 금주전례: 해설 - 김봉선, 독서 - 이계복, 유공순
- 차주전례: 해설 - 배상정, 독서 - 나중대, 박규래
- 성당청소: 은총의 모후(1/16 화), 정의의 겨울(1/20 토)
 ■ 지난주 봉헌금: 1,642,7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8-0532 사무실: 538-0531 주임신부: 박 장 신
 유계원: 538-0534 수녀원: 538-0533 서목회장: 진 용 복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jdsd.or.kr

- 금주모임 ① 성심회, 자모회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대건회 봉사활동 - 오늘 교중미사 후
- 한공공소 미사: 1월 14일(주일) 후3시(분당출발 후2시 30분)
- 면단위 가정방문: 16일(화) 망계동, 덕천면 - 전9시부터
- 초6~중고생대상 첫영성체 교리반 모집: 첫모임 - 1월 17일(수)후5시
- 산악회 산행: 1월 15일(월) 전남 함평 "고산봉 및 함평 해수점"
 체육관 앞 전8시 30분 출발
- 차주모임: 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1,284,900원 ■ 교무금: 673,000원
 ■ 센터신축헌금: 320,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박 장 신
 유계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 차 복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ochon.org

- 우리본당은 ① 공부하는 신자 ② 감사하는 교우 ③ 기뻐하는 공동체
- 전신자 성경 공부(27): 사무엘기 하권 1장~10장(성경을 꼭 가져 오세요)
- 2007년도 교무금을 신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죽 ME 113차 교육: 12일(금)~14일(일) ※ 최경순(도마), 순영란(테레사)부부
- 가정주거: 18일(목)~21일(일) ※ 성가사 - 18일(목) 저녁미사 후
- 주님봉헌축일(2월2일) 제대초 및 가정초 접수: 사무실
- 봉헌공소미사: 20일(토) 7시30분
- 금주모임 ① 마르타와 올드레아 - 교중미사 후
 ② 대건회 엠마우스 - 17일(수) ③ 성모회 - 19일(금) ④ 자모회 - 20일(토)
- 감사헌금: 최상자 - 20만, 조혜숙 - 10만, 이명 - 10만
- 센터기금: 신영순 - 18만, 한희희 - 12만, 박진홍 - 16만
 이상규 - 10만, 12월23일 영세자일등 - 13만
 ■ 지난주 봉헌금: 1,382,000원 ■ 교무금: 867,0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송 영 진
 F A X: 581-0241 서목회장: 박 용 우

- 올해 사용할 제대초 봉헌 바랍니다.
- 18일(목) 저녁미사 없습니다.: 교구 사제 서품시 때문에.
- 성모회: 오늘 공소미사 후
- 만성공소미사: 오늘 오후 3시
- 21일(일) 용반공소미사 없습니다
- 성모회 제대회: 21일(일) 공소미사 후
- 성당차량 운행노선 ① 1호차 - 선양, 신덕, 대촌, 흥덕, 용반
 ② 2호차 - 신성, 신흥, 반평, 만석, 유정자
 ③ 3호차 - 영진, 진서, 시로
- 특별헌금: 이선녀(글라리아) 5만
- 미사안내: 금주 - 오레, 이순덕, 차주 - 이중민, 김영남
- 금주전례: 해설 - 고재일, 독서 - 신문근, 허인숙, 봉헌 - 유봉현 부부
- 차주전례: 해설 - 김영남, 독서 - 손수덕, 송정미, 봉헌 - 김민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63,000원 ■ 교무금: 100,000원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시기동성당

만 경 주임신부: 548-9995 사무실: 548-9911 주임신부: 백 수 현
 F A X: 548-9911 서목회장: 최 병 순

- 축! 제5대 사목회 - 수고하시겠습니다!
- 금주 ① 사목회 - 교중미사 후 ② 연말 결산감사: 수고하시겠습니다.
- 차주: 제대회 - 교중미사 후
- 예비신자 교리: 1월말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제대초, 개인초 봉헌 받습니다.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특별헌금: 황정순 - 10만, 김옥순 - 2만 ※ 감사합니다.
- 금주: 해설 - 양희정, 독서 - 최병순, 김준화
- 차주: 해설 - 최광식, 독서 - 봉상술, 문병선
 ■ 지난주 봉헌금: 320,800원 ■ 교무금: 880,0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4-5652 주임신부: 범 성 배
 F A X: 544-5654 서목회장: 손 영 일

- 제대초 봉헌 - 사무실, 전례부장에게 접수바랍니다.
 (제대초-6,000원, 가정초-2,500원)
- 대건효도병원(어르신전문요양 한방양방 병원)-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미리내성지일에 위치(전화 031-671-0500, 0044) 원장 방상복 신부
- 금주모임: 올드레아 - 교중미사 후
- 차주모임: 애령회 - 교중미사 후
- 금주전례: 해설-박영덕, 독서-최상일, 김정애, 봉헌-손화봉 부부.
- 차주전례: 해설-반영복, 독서-김 용, 박영덕, 봉헌-안종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79,450원 ■ 교무금: 870,000원
 ■ 교구신축헌금: 150,000원 ■ 교구미수금: 130,000원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김 봉 송
 F A X: 571-8208 수녀원: 571-8203 서목회장: 박 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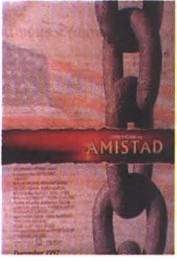
- 2007년도 교무금 인입을 아직 못하신 세대는 신납바랍니다.
- 성경쓰기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쓰기노트는 성물방에서 판매
- 금주모임: 평화회-14일(주일) 후7시
- 공소미사: 태인-17일(수), 옥단-18일(목) 후7시
- 영신회 정기총회: 21일(주일) 공소미사 후
- 예비신자 교리: 매주 수요일 후2시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 사제, 부제 서품식: 18일(목) 후2시, 중앙성당 ※많은 기도바랍니다.
- 중·고등부 동계 피정: 20일(토)~21일(주일) 신태인성당
- 금주전례: 해설-김진권, 독서-최석원, 안순선, 봉헌-한경신부부
 ■ 지난주 봉헌금: 909,700원 ■ 교무금: 1,426,000원

신 풍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이 동
 F A X: 544-2281 수녀원: 544-2273 서목회장: 임 석 역

- 금주모임: 올드레아
- 차주모임: 연령회, 자모회
- 공소미사: 백자(전8시)
- 본당미사 참례공소: 와룡, 차주-백자
- 미납된 교무금과 가톨릭센터신축헌금 완납하여 주세요.
- 창세기 연수: 18일 - 21일
- 신부님 휴가: 19일 - 29일까지, 평일미사-말씀에 전례
- 복사단, 전례단 겨울 연수: 22일(월)
 ※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지난주봉헌 455,000원
 ※ 누계-68,075,000원 ※ 신축헌금 납입에 정성을 다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51,800원 ■ 교무금: 494,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정 양 현
 유계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서목회장: 임 정 현

- 금주: 성모회(교중미사 후), 대건안드레아회(교중미사 후)
 참고지 시상(교중미사 후)
 ※ 1월18일(사제서품식)과 1월19일(첫미사) 미사가 없습니다.
- 차주: 모니카회(교중미사 후)
 ※ 매일 셋째주는 성소후원회비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 승합차운행 봉사자: 금주- 박희관(프란치스코) 차주-박영민(요셉)
- 금주전례: 해설-최희경, 독서-유용산, 송영순, 봉헌-이만춘가족
- 차주전례: 해설-안근순, 독서-유 정, 양현숙, 봉헌-임정환가족
- 성당청소: 3,4,5구역
 ■ 지난주 봉헌금: 447,500원 ■ 교무금: 190,000원



1839년에 실제했던 사건을 근간으로 흑인 노예의 인권과 자유를 소재로한 영화, <아미스타드 (Amistad, 1997)>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에게 포획돼 실려가던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미국 법정에 살인 혐의로 서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들로 인해 미국법정은 노예제 존폐를 둘러싼 토론장이 되는데, 그들이 난생 처음으로 배운 영어로 '우리에게 자유를!(Give Us Free)'이란 절구는 결국 좌절되고, 그들은 감옥으로 돌아가 다시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감옥의 어두운 구석에서 잠바라고 하는 흑인은 노예 폐지론자가 건네줬던 성경책을 보게 된다. 물론 아프리카인인 그가 영어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경의 주요 장면으로 그려진 몇 개의 삽화를 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성경에 그려진 그림들을 끼워 맞춰가며 이야기를 엮어나간다. 처음의 장면은 유대인들이 사자들에게 던져진 장면이었다. 그러자 책을 들고 있던 잠바가 동료에게 설명한다. **“옛날에 백인들은 우리보다 더 고생하며 살았나봐. 봐, 고난투성이야.”**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자 아기 예수가 마리아, 요셉, 목자들에게 둘러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자 그는 **“근데 그 때 이야기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던 모양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가 묻는다. **“이 이야기는 누군데?”** 그러자 잠바는 책장을 넘겨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림을 펼쳐 보이고,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후광을 가리키며 **“나도 몰라. 하지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해가 따라다녀.”** 다음 그림으로 넘기자 예수님이 병들어 아픈 듯한 사람들을 만져주는 장면이 나오자, **“여기 이 사람이 손으로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어.”** 계속해서 페이지는 넘겨진다.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는 무리들 사이에 서계신 장면이 나오자, **“불쌍한 사람을 지켜주고 있네.”** 또 넘긴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 이 사람이 잡힌 거야. 뭔가 죄목을 쓰고.”** **“봐, 여기 이렇게 손이 묶여 있잖아.”**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자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장면을 보자, 옆에 있던 동료는 잠바에게 **“그냥, 이야기 일 뿐이야, 잠바.”**하고 돌아서려 한다. 그러자 잠바는 다시 **“하지만,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사람들이 시체를 내렸어. 그리고 동굴에 넣었어. 우리가 하는 식으로 천으로 싸서.”** 다음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함께 계시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그러다 결국은 하늘로 올라갔어.”**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영혼도 저기로 가는 거야.”**라며 이들은 맨 마지막으로 세 개의 빈 십자가가 그려진 그림에 눈길을 멈춘다. 그리고 영화의 그 다음 장면은 그들을 고국에서 강제로 여기까지 데려온 세척의 배에 우뚝 솟은 세 개의 돛대, 돛이 견혀져 십자가 형상을 드러내는 세 개의 돛대를 그들의 기억과 함께 디졸브 시킨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그 힘든 순간에 알 수 없는 **“그”**에 대해 경외감과 신비감을 느끼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이다.

영화 속에서 세 개의 십자가와 십자가 모양의 세 개의 돛대는 강한 여운을 남겨준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인상과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는 것을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장면을 통해 관객들도 뜻모를 경외감과 신비감을 느끼게 한다. 흑백 삽화를 통해 흑인죄수들의 운명과 맥을 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함과 엄숙함이 영화 속에도 배어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도 몇 장의 삽화를 보면서 그들의 희망과 구원을 말하고 느끼는 흑인들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한다. 또한 복음을 통해 은총을 주시는 진정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게 하는 이 영화, 스피버그의 <아미스타드>는 우리의 신앙정서에 감동을 선사해준다.

(홍보국장 서석희 신부)

